

2019 KU 글로벌탐사 프로그램 - 노르딕 참가 후기

2016140636 김지성

1. 느낀 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노르웨이의 교육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우리나라에 교환학생을 많이 오는 국가도 아니어서 주변에서 노르웨이 국적의 학생들을 접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한국이라는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K-pop은 그들이 일상에서 듣는 노래였으며, 한국어와 그 역사에 대해서 아는 학생들도 꽤 있었다. 어떤 노르웨이 친구는 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며, 고등학교에서 3.1운동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한 적이 있는 친구도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Nansen Academy가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지식을 공유하는 교육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은 오후 4시~5시까지 이어지며, 중간중간 15~30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쉬는 시간마다 커피와 차를 마시면서 강의시간에 들은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했다. 중국의 한 강연자가 중국의 통치체제가 민주주의보다 낫다는 발언을 했을 때에는, 강의실이 뜨거운 토론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숙소는 1인 1실로 주어진다. 학교의 기숙사인데,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다. 하지만 청결하게 관리되고 불평을 하는 참가자는 없었다. 노르웨이는 수질이 깨끗하여 수도물을 마신다. 따라서 정수기는 비치되어 있지 않고, 세면대의 물을 그냥 받아 마시면 됐다. 한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라 신기했다. 매일 강연이 연이어 진행되는 만큼, 프로그램의 막바지에는 피곤했지만 강의의 수준과 전달력이 대부분 높아 집중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 일과가 끝나면 개인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노르웨이는 맥주는 오후 8시, 3.9도 이상의 주류는 오후 6시까지밖에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과가 끝나면 근처 주류 판매점으로 다같이 장을 보러 갔다. 노르웨이의 음주문화 또한 한국과 많이 달랐다. 술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술을 마신 후에 펍이나 바에 간다고 했다. 맥주 1캔에 마트가격 기준 4000원 정도로, 한국보다 훨씬 비쌌으며, 양주 및 보드카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이었다. 참가자들 모두가 대학생이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가볍게 맥주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낮에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를 가지고 또 토론을 하는 경우도 제법 많았다. 식사 또한 준수하게 제공되었다. 아침을 제외하면 거의 매 끼니에 연어가 메뉴로 나왔으며,

노르웨이 친구는 실제로는 이렇게 매일 연어를 먹지 않는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노르웨이 전통 음식 또한 여러 번 나와서,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노르웨이의 레시피를 맛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음식이 한국과 많이 달라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으나, 갈수록 맛있게 느껴졌고 프로그램중에 식단이 맞지 않아서 힘들지는 않았다. 날씨는 8박 9일 중에서 대부분 흐렸다. 릴레함메르 지방은 연중 맑은 날이 많지 않으며, 비도 자주 내린다고 한다. 하루 Day-Off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비가 쏟아져서 크게 활동을 하지는 못한 점이 아쉬웠다.

강의에 대해서는 참가자들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만족스러웠다. 가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강의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하였고, 좋은 답변을 얻었다. 대부분의 강사는 영어를 수준급으로 구사했으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 참가자 또한 없었다. 노르웨이의 교도소장, 전 Christian Party 당 대표 등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강사들도 초빙하여 강의를 하였으며,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중국인 강사도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공자와 유교, 중국의 통치 체제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문화와 공유하는 것이 많은 만큼, 이 강의를 듣고 질문을 하고 노르웨이 학생들에게 한국과 중국의 다른 점 또한 설명해 주면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고려대와 연세대에서도 교수님이 한 분씩 초빙되어 강의를 하셨는데, 노르웨이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감명 깊게 들었다. 대부분의 강의는 철학과 정치외교학에 기반한 내용들이어서, 이 분야에 많은 지식이 있지 않는 이상 모든 내용을 따라가기는 힘들었다. 이 부분은 후에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으며, 이 부분이 가장 좋은 학습 효과였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경제학을 전공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와 관련된 학습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 먼 타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정보도 충분치 못했고 걱정도 많이 되었으나,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릴레함메르를 떠날 때까지 모두가 친근하게 해주었다. 노르웨이에서도 따뜻한 인류애를 느낄 수 있었다. 훌륭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힘써주신 NEWDAY측과 고려대학교 국제처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다음 년도에도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 다음 참가자들을 위한 참고사항

- A. 프로그램 당일에 노르웨이에 도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 전날 오슬로에 도착하여 하루 숙박을 하며 시차에 적응하는 것이 8박 9일간 연속하여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좋다

- B. 노르웨이의 물가는 매우 비싸서, 식사를 식당에서 가볍게 하기란 부담이 크다. 맥도날드 빅맥의 가격은 13700원 정도이며, 더 비싼 곳도 있다.
- C. 날씨가 변화무쌍하다. 여름에 해가 뜨면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가며 햇볕 때문에 반팔만 입어도 충분하다. 반면 비가오면 온도가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두꺼운 외투가 필요하다.
- D.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정치학과 관련된 강의를 개설된다. 따라서 국제정치에 관한 신문 기사를 조금 읽거나 관련 분야를 공부해서 간다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E. 노르웨이 사람들은 영어를 원어민과 같이 구사할 수 있으므로,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영어로 자유로운 대화가 지장이 있다면, 프로그램 소화가 어려울 수 있다.
- F. 노르웨이는 수돗물을 마셔도 되므로, 한 통에 4000원을 지불하고 생수를 사마실 필요가 없다. 텀블러를 가져가서 물을 받아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 G. 비행기 직항편이 없는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오슬로에 도착할 수 있는데, Finnair를 타고 헬싱키에서 환승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 H. 노르웨이의 택시비는 매우 비싸다. 본인은 공항에서 호텔까지 약 15분정도 택시를 탔는데, 500크로네 (한화 6만 5천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오슬로 시내에는 지하철이 매우 잘 되어있으므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I. 주최측을 위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가거나, 친해진 친구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사 가면 좋다.
- J.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개인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현지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으므로, 한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필자는 마지막 날 Farewell 및 수료증 수여식에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는데, 한국 아이돌 '빅뱅-하루하루'를 K-PoP팬인 노르웨이 친구와 앞에서 불렀고,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3. 참가후기 사진



릴레함메르 전경



Nansen Academy 도서관- 이곳에서 토론 및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다.



일과 후에도 참가자들은 토론을 하고 대화를 이어간다



Nansen Academy 기숙사 - 사진 뒷편으로 세면대가 있으며 이곳에서 음수를 하면 된다.



My Country and Me라는 세션에서, 필자가 입대 전 머리를 미는 사진으로 한국의 병역제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옆은 심심해서 삭발을 한 노르웨이의 친구가 본인의 사진을 협찬해 주었다.



프로그램 기간 중, 쉬는시간 및 일과 후에 자유롭게 체스 및 탁구, 배드민턴, 축구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강의를 하고 있는 전 Christian Party당 대표 Dagfinn Hoybraten.



필자는 마지막 날 K-Pop을 부르고 프로그램을 간단한 뒤풀이와 함께 마무리하였다.